

# 서평: 헤르메스를 위한 변명<sup>\*</sup>

— 『朱子大傳』과 『陽明大傳』 번역에 부쳐

김태완<sup>\*\*</sup>

- 
1. 언어에 관한 단상斷想
  2. 번역, 다른 언어와 만남
  3. 헤르메스를 위한 변명
  4. 『주자평전』과 『왕양명평전』 번역 전말과 소회
  5. 驥尾千里
- 

## ■ 국문요약

사람은 태어나면서 언어세계의 일원이 된다. 철학, 진화생물학, 인지과학 등 여러 학문분야에서 언어의 기원, 언어의 본질, 인간 언어능력의 생득성(이른바 언어본능) 등 언어에 관한 온갖 탐구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갑론을박을 이어가고 있다. 언어의 본질에 관한 연구는 언어학의 문제로 차치하고 현실에서는 모든 인간은 기성 언어의 세계의 일원으로 태어나서 살아간다. 태초의 언어가

---

<sup>\*</sup> 이 글은 中國 浙江省 杭州 浙江大學 東景南 교수의 『朱子大傳』, 『陽明大傳』을 번역하고서 느낀 소회와 번역의 전말을 서술하기 위해 쓴다. 아울러 번역과 나아가 언어(모국어 및 외국어)에 관한 내 생각을 밝히려고 한다. 이 글은 2018년에 출간한 『나의 외국어 학습기』와 아이디어와 내용, 표현이 어느 정도 중복된다. 이 점을 미리 밝혀두어서 읽는 이의 양해를 구한다. 또한 이 글은 연구의 주제를 정하고 가설을 세우고 탐구하여서 논리적 결론을 이끌어내는 학술적인 논문이 아니라 그간 동양고전 및 학술서적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느낀 소회를 서술하여서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他山之石으로 삼게 하려는 목적을 지향한다.

<sup>\*\*</sup>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특별연구원 / E-mail: youngok0215@hanmail.net

어떤 언어였건 우리는 이미 언어가 작동하는 세계에서 태어나 살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이름이 알려진 대상사물은 이름과 지시체 사이의 관계를 받아들여 언중과 의사소통을 하며 새로운 사물을 접하게 되면 무어라고 명명을 함으로써 그 사물이 우리 의식에 존재하게 된다.

나라마다, 지역마다 언어는 다르다. 그래서 아주 오랜 고대사회부터 다른 언어와 소통을 해야 할 필요가 생겼다. 이 소통의 역할을 번역(통역)이라 한다. 번역은 원칙적으로는 100% 정확하게 원본을 전달해야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자기 나름의 선이해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전달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왜곡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정확한 전달과 자의적 왜곡 사이에는 해석이 개입한다. 그리고 한 문화가 다른 문화와 만나게 되면 반드시 번역의 과정을 통해 서로 이해를 높이고 이를 통해 양자의 문화가 발전한다.

고대 동아시아 사회는 번역을 통해 불교를 받아들였고 근대에는 기독교를 받아들였다. 마찬가지로 서양에서도 동서교역이 이루어지면서 불교와 유교, 도교와 같은 동양사상이 전파되었다. 번역은 이처럼 한 문화의 발전에 있어서 창작에 못지않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우리 근대사회는 번역을 경시하는 풍조가 있었다. 번역을 통역과 비슷한 역할로 생각하고 통역은 중인인 역관이 전담하는 일이라는 오랫동안 내려온 인습적 고정관념에서 비롯한 측면과 연구의 역량을 기르는 일환으로 번역을 받아들인 문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번역물은 원작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다. 번역은 원작의 존재와 함께 출발하는 것이다. 번역은 원작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만 번역되고 나면 이식된 곳에서 또 하나의 문화를 형성하고 나아가 그 자체 텍스트가 된다.

**주제어** : 언어의 세계, 이름과 지시체, 언어의 소통, 번역, 선이해, 해석, 역관

## 1. 언어에 관한 단상斷想

사람은 태어나면서 언어세계의 일원이 된다. 아득한 옛날부터 사람들

이 언어 현상에 관심을 가진 이래로 지금까지 철학, 진화생물학, 인지과학 등 여러 학문분야에서 언어의 기원, 언어의 본질, 인간 언어능력의 생득성(이른바 언어본능) 등 언어에 관한 온갖 탐구를 계속하고 있지만 여전히 결론을 얻지 못한 채 갑론을박을 이어가고 있다. 촘스키(A. N. Chomsky, 1928-)의 '변형문법'이 아주 오랫동안 언어학계를 지배하는 듯이 하더니 근래에는 인지과학, 진화생물학, 문화인류학 등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의 연구방법론에 힘입어서 문화와 언어의 상호작용, 언어의 진화적 측면으로 언어의 기원과 속성을 해명하는 이론이 촘스키의 공고한 아성을 무너뜨리면서 차츰 힘을 얻어가고 있다.

그러나 언어학, 그야말로 언어 그 자체를 연구하는 학문을 벗어난 우리 일상의 생활세계에서는 언어의 본질, 언어의 존재론적 기반, 언어의 상징과 의미에 관한 이해가 달라진다. 우리의 세계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방식으로, 곧 자연과학이나 물리학적 세계로, 천문학적 시공의 숫자로 아무 말도 없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세계는 우리가 구사하는 언어 안에 있는 것이다. 인간은 언어로써 생각하고 언어로써 세계를 구성한다.

『구약성서』에서는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명령)으로써 천지를 창조하였다고 한다. 우주와 삼라만상이 모두 '그가 말씀하시매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시매 견고히 섰던' 것이다.<sup>1)</sup> 창조주는 인류가 생존을 하고 문명을 일구어낼 모든 조건을 마련한 다음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한다. 그러고서 동식물을 사람 앞에 데리고 가서 보인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

---

1) 『성경전서』 「시편」 33: 9.

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 六畜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sup>2)</sup>

‘아담의 이름 짓기’ 신화는 무엇을 말하는가! 사람은 어떻게든 대상사물을 무어라고 이름을 붙임으로써 관계를 맺기 시작한다. 여러 해 전, 대안학교에서 일을 할 때 중등학생들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다. ‘여기에 인형이 하나 있다면 맨 먼저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물었다. 남학생들은 뜬금없는 질문이라는 듯 특별히 관심을 보이지 않거나 혹은 어떻게 할 바를 잘 모르겠다는 듯이 반응을 하였다. 여학생들은 이러저러한 답을 했는데 그 가운데 대다수 여학생이 공감한 답 가운데 이런 말이 있었다. “맨 먼저 인형에게 이름을 지어준다.”

남학생은 어릴 때 인형을 자기 놀이의 세계 안에서 생각해본 적이 별로 없었을 것이다. 지금도 초등학교 남자 아이들의 생활세계를 들여다보면 주로 차나 총, 레고 같은 장난감을 가지고 놀며, 속도와 힘을 추구하거나 구조를 쌓아가는 성질의 장난감을 선호하고 있다. 여학생은 어릴 때부터 인형을 늘 가까이 했기에 인형을 대하는 방식이 아주 익숙하다. 그래서 여학생은 인형이 하나 생기면 맨 먼저 이름을 지어준다고 대답하였던 것이다. 남학생과 여학생을 굳이 구별하지는 것이 아니라 낯선 대상사물을 대하는 원초적인 방식이 일반적으로 이름 짓기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말하려는 것이다.

태초에 하느님이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였으며, 태초의 인간 아담이 그의 눈앞에 나타나는 동물을 일컫는 말이 그대로 이름이 되었다 하는 신화는 인류 시원의 사람들이 세계를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우주의 형성, 아니 지구의 탄생만 하더라도 45억 년 전의 일이며,

---

2) 『성경전서』 「창세기」 2: 19-20.

거칠게 말하자면 생물이 출현한 것은 30억 년쯤, 現生屢代의 출현은 5억 년쯤이다. 그리고 600만 년쯤에 와서야 아프리카 유인원에서 인류로 진화하는 갈래가 나타났으며, 호모 에렉투스가 150만 년쯤, 호모 사피엔스가 20만 년쯤 전에 출현했다고 알려져 있다. 수백 만 년, 수십 억 년 단위의 지질학적 연대는 물리적 세계의 구조와 존재를 설명하는 데에는 유용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에서 세계와 우주를 인식하는 데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천지창조나 아담의 命名 신화는 바로 우주나 세계의 형성은 인간의 언어적 지칭과 함께 생겨났다,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의 의식 내에 들어오으로써 비로소 우주와 세계가 존재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한다. 곧 우리의 개념적 인식의 세계가 실제로 우리가 의식하고 지각하는 세계인 셈이다.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세계는 언어로 묶이는 세계, 언어가 표현할 수 있는 한에서의 세계인 것이다.<sup>3)</sup>

태초에 생물이 어떻게 생겨났건, 森羅萬象이 어떻게 이루어졌건, 우주와 세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건 우리는 모두 이미 어떻게든 구성되어 있고 존재하는 세계, 사회의 조직이 갖추어진 세계에서 태어났다. 또한 태초의 언어가 어떤 언어였건<sup>4)</sup> 우리는 이미 언어가 작동하는, 곧 언어의 세계에서 태어나 살고 있다. 그런 점에서 기존의 이름이 알려진 대상

3) '언어의 한계는 세계의 한계'라는 비트겐슈타인(L. J. J. Wittgenstein)의 유명한 명제를 떠올릴 수 있다.

4) 태초의 단일한 언어는 어떤 언어였을까 하는 물음은 엉뚱한 면도 있지만 나름대로 매우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는 물음이기도 하다. 이런 물음 배후에는 모종의 음모나 기획이 숨어 있을 수도 있지만, 예컨대 자국 언어나 자기 문화체계를 이룬 언어의 우월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고대 이집트 프삼티크(Psammetichos) 1세(664-610 재위), 신성로마제국 프리드리히(Friedrich) 2세(1220-1250 재위), 스코틀랜드 제임스 4세(1488-1513 재위)는 모두 언어의 접촉을 제한한 상태에서 아동을 양육하여 어떤 언어를 말하는가를 통해 태초의 언어를 찾고자 하는 실험을 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모텐 H. 크리스티안센, 닉 채터/이혜경, 『진화하는 언어』, 웨일북, 2023, p. 398, 주) 7. 참조.

사물에 대해서는 그 사물의 이름과 지시체 사이의 관계를 받아들이면서 파악한다. 그러나 알려져 있지 않거나 命名되지 않은 사물을 접하게 되면 어떻게든 그 사물을 무어라고 命名하고 그 명칭을 공유하여 서로 소통함으로써 그 사물은 우리 의식에 하나의 존재로서 자리하게 된다. 이름이 사물을 단순히 지칭하는 指示體에서 개념화하고 문법적 機能所를 얻어서 의사소통의 역할을 하기까지는 또 언어적 발전의 과정을 지나야 할 것이다. 곧 단순히 사물을 지칭하던 이름이 언중에 서로 쓰이면서 내용과 의미를 담은 말이 되고, 지시적 기능을 가진 말에 서술적 기능을 가진 말이 더하여서 문법적 체계를 가지면서 언어로 발전했을 것이다.<sup>5)</sup>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sup>6)</sup>

---

5) 사실 원초적 언어가 동사적(서술적) 구조였을까, 명사적(지시적) 구조였을까 하는 문제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도 존재하는 원시적 언어 가운데에는 품사가 명사와 동사로만 되어 있는 언어도 있다고 한다. 『진화하는 언어』, p. 22 참조.

6) 김춘수, 「꽃」.

이 시의 주체의식이나 미학, 문학사상이 무엇이든 시의 표면에 나타나는 의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상과 나 사이에 이름을 통해 관계를 맺는다는, 그리고 이름을 부여함으로써 그의 존재를 승인하고 나의 의식에 자리매김을 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命名과 개념규정으로서 언어의 기원과 본질에 관한 哲學的 懷疑는 그 역사가 아주 오래되었고 또 언어의 한계에 관한 원초적인 반론은 언어에 관한 성찰에서는 늘 요청된다. 『老子』의 제1장은 언어의 규정적 한계를 인상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道는 道라고 할 수는 있지만 한결같은(그 자체, 본질적인) 道는 아니다.

이름은 (대상을) 이름붙일 수는 있지만 한결같은(그 자체, 본질적인) 이름은 아니다.<sup>7)</sup>

너무나도 유명한 이 언설은 그 자체로 수많은 주석을 남기고 있고 또한 노자 사상의 핵심이자 상징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이러한 노자의 이름(언어)의 한계에 관한 본질적 성찰은 유가의 正名 사상과 일종의 에난티오드로미아(enantiodromia)를 형성한다. 孔子는 春秋시대 혼란상의 한 원인을 名分の 붕괴에서 찾는다. “명분이 바르지 않으면 말이 순리에 맞지 않고 말이 순리에 맞지 않으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약이 일어나지 않고 예약이 일어나지 않으면 형벌이 적중하지 않고 형벌이 적중하지 않으면 인민은 손발을 둘 곳이 없다.”<sup>8)</sup> 孔子는 人間事가 정치의 영역을 벗어날 수 없고 정치에서 가장 우선할 것은

7) 『老子』 1章. 道可道, 非常道, 名可名, 非常名.

8) 『論語』 「子路」. 名不正則言不順, 言不順則事不成, 事不成則禮樂不興, 禮樂不興則刑罰不中, 刑罰不中則民無所措手足.

권력기구, 행정과 법령, 정치이념 등의 명분을 바로세우고 여기에 맞추어서 정치를 이끌어가야 사회의 혼란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sup>9)</sup>

그러나 명분과 실제의 불일치는 人間世에서 피할 수 없는 모순이며 부조리이다. “글은 말을 다 나타내지 못하고, 말은 뜻을 다 나타내지 못한다.”<sup>10)</sup> 하는 관념 또한 일찍부터 형성되어서 지시적 기능과 의사소통의 기능으로서 언어의 본질적 한계에 관한 성찰이 동양문화의 텍스트에서는 아주 일찍부터 나타났으며 언어의 표현을 넘어선, 또는 언어 이외의 방법으로도 의미를 지시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런 언어에 관한 이해를 피상적으로 이해하면 언어를 한갓 뜻을 전달하는 수단이나 방편으로만 보게 한다.

장자는 언어의 수단으로서 가진 속성을 우의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

통발은 물고기를 잡기 위한 도구이니 물고기를 잡은 뒤에는 통발은 잊어버린다. 올무는 토끼를 잡기 위한 도구이니 토끼를 잡은 뒤에는 올무는 잊어버린다. 언어는 뜻을 전달하기 위한 도구이니 뜻을 얻으면 말은 잊어버린다. 내 어찌 말을 잊은 사람을 얻어서 그와 함께 말을 해볼까!<sup>11)</sup>

그러나 장자의 술회에서 마지막 구절은 언어의 본질적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언어에 의존해야 하는 인간의 의사소통의 현실을 아이러니하게

---

9) 孟子和荀子 역시 기본적으로 孔子의 正名 사상에 입각하여 언어의 정확한 의사 전달의 기능을 긍정하고 명확한 이해를 추구하였다. 孟子는 知言을 언급하여 언어의 정확한 파악을 주장하였고, 荀子は 正名을 통해 언어의 사회적 기능을 분석하였다. 『孟子』 「公孫丑·上」과 『荀子』 「正名」에서 상세하게 논증하였다.

10) 『周易』 「繫辭·上」 12章. 子曰, 書不盡言, 言不盡意.

11) 『莊子』 「外物」. 筌者所以在魚, 得魚而忘筌. 蹄者所以在兔, 得兔而忘蹄. 言者所以在意, 得意而忘言. 吾安得夫忘言之人而與之言哉!

보여주고 있다. 인간은 언어로 의사를 완벽하게 소통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언어(또는 언어적 수단)가 없이는 의사소통 자체가 불가능하다.<sup>12)</sup>

고대 중국인들이 특히 언어의 한계에 일찍부터 민감했던 것은 어쩌면 일정부분 고전중국어(文言漢文)의 문자와 언어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고대중국어는 한 음절이 句를 이룰 수도 있으며 문자인 한자는 한 글자가 수많은 뜻을 가진 데다 同音異議語가 아주 많고 품사의 轉成이 쉽다는 등의 특성이 있어서 의사소통 과정에서 문자와 언어가 갖는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다고 하겠다. 덧붙이자면, 이런 특성은 언어적 한계라고 할 수 있지만 이런 특성이 반드시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 그만큼 의미의 폭이 유동적이고 유연하여서 해석의 여지가 많으며 言外의 의미를 포착하게 만드는 知的 動因이 되기도 한다.

아무튼 인류의 문화가 형성된 이래 모든 인간은 언어를 사용하게끔 되어 있고 언어는 소통을 지향하게 되어 있다. 언어가 순전히 나와 어떤 구체적 대상물 사이의 지시적 행위에만 국한된다 하더라도 역시 소통의 측면을 띠고 있다. 내가 어떤 대상을 무어라고 이름을 붙이거나 부르는 것은 그 대상과 내가 소통을 하는 것이며 내 의식에 존재하게 하는 것이며 나아가 그 지시어가 유통되어서 한 사회에 자리매김하면 의사소통의 수단이 되는 것이다. 나는 그 대상을 무어라고 命名함으로써 그 대상과 관계를 맺는다. 우리는 언어가 없는 세계는 상상도 할 수 없다. 물고기가 물에서 살면서 물을 의식하지 않듯이, 우리는 날마다 한순간도 쉽

---

12) 手語나 몸짓, 손발짓도 언어의 형태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언어가 순전히 제스처 제임에서 나온 것이라 하더라도 양자 사이에 의사를 전달하지 못한다면 의미 없는 몸짓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어떤 양식을 따르더라도 전달하려는 의미는 서로 간에 통해야만 한다. 개는 사람의 손짓이나 음성의 미세한 차이에서 의미를 추출하여 의사를 알아듣고 반응하지만 문제는 이를 체계화하거나 추상화하지는 못한다. 아직까지는 의미전달로서 언어현상은 인간에게만 고유한 능력으로 여겨야 한다.

이 숨을 쉬면서 살지만 공기를 의식하지 않듯이 언어의 바다에서 헤엄치며 언어의 공기를 마시고 내뿜으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 2. 번역, 다른 언어와 만남<sup>13)</sup>

翻譯은 翻과 譯이 합한 말이다. 翻<sup>14)</sup>은 원래 글자 뜻이 ‘날다’는 뜻이고, 여기서 뜻이 확장되어서 ‘나부끼다, 뒤치다, 뒤집다’와 같은 뜻이 생기고 또 더 발전하여서 ‘번역하다’ 하는 뜻이 되었다. 譯은 훨씬 이전부터 다른 언어를 자기 언어로 옮기는 일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예기』 「왕제」에, 중국을 중심으로 사방 민족과 언어가 소통하지 않아서 의사소통을 하려면 번역이 필요하며, 사방의 말을 통역하는 사람을 각각 동방은 寄, 남방은 象, 서방은 狄鞮, 북방은 譯이라 한다고 하였다.<sup>15)</sup> 司馬遷(145-85. B.C.)의 『史記』에도 한이 건국되고 체제를 갖추어서 강대국이 되자 풍속과 문화가 다른 사방 이민족이 여러 단계의 통역(重譯)을

13) 이 단락의 내용은 2018년에 출간한 줄거 『나의 외국어 학습기』, 메멘토의 머리말 부분을 부분 수정하여 다시 실었다.

14) 翻은 翻의 이체자이다. 장영진, 『漢字字源辭典』, 심산, 2018, p. 572. 중국에서는 번역이라고 할 때 주로 翻譯(간체자로는 翻译)이라고 하며, 우리가 언어로 번역을 하는 행위를 通譯이라고 따로 구별하는 것과 달리 書面이든 口頭이든 두 언어를 매개하는 행위를 모두 翻譯이라 한다. 『禮記』 「王制」의 해당 구절의 주석에 각각 傳寄, 放象, 相知, 陳說이라고 하였는데, 그 의미는 두 언어 사이를 매개하면서 일어나는 통역의 여러 양상을 하나씩 추출하여서 말한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동방의 언어를 통역할 때는 오로지 傳寄의 역할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동서남북 여러 이민족과 중국이 의사소통을 할 때 이들 통역의 여러 양상이 다 일어나지만 이민족의 방향에 따라 번역의 양상을 하나씩 대별하여 개념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 통역하는 과정에서 이런 여러 기능이 한꺼번에 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15) 『禮記』 「王制」, 五方之民, 言語不通, 嗜欲不同. 達其志, 通其欲, 東方曰寄, 南方曰象, 西方曰狄鞮, 北方曰譯. 『예기』의 기록을 따르면 고대 중국세계에서는 번역 또는 통역을 서로 다른 언어 사이의 소통이라는 일반적 행위로 보지 않고 해당 언어 상호간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식한 듯하다. 그러니까 翻은 자국어(를) 다른 언어로 옮기는 일이고 譯은 외국어를 자국어로 옮기는 일이 되는 셈이다.

거쳐서 중국과 교류를 청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sup>16)</sup>

굳이 말할 것도 없이 사람은 말을 하는 동물이다. 아기가 갓 태어나서는 밤낮을 구별 못하고 오로지 울음으로만 배고픔과 엄마 뱃속에서 내던져진 불안과 오줌똥을 지리고서 몸의 불편함을 표현하다가 차츰 눈을 뜨고 사물을 보게 되면서 웅알이를 시작으로 손짓, 발짓, 몸짓을 더하여서 자기 생각을 구체적으로 나타내 보인다. 아기가 울음, 몸짓, 웅알이로 자기의 감정과 의사를 전달하다가 말을 배워서 말을 하듯이 인류는 거의 울음이나 웅알이, 몸짓의 수준으로 의사소통을 하다가 말이라는 추상적 매개를 만들어 내서 사용하기까지 얼마나 오랜 세월을 보냈는지는 알 수 없다. 어쨌든 인류의 생물학적 진화의 어느 순간에 말을 하는 기능이 생겨나고 말을 하게 되면서부터는 문명과 문화가 폭발적으로 성장하였다. 언어의 탄생과 관련하여 인류의 생물학적 진화와 문화적 진화의 과정이 어떠한 지今の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 바로 그 순간부터 어떤 말을 하는 집단의 일원이 된다. 그리고 내가 태어남을 선택할 수 없듯이 내가 엄마말(mother tongue)을 선택할 수는 없다.

생물학적으로 사람은 단일한 종인데 왜 말이 서로 다를까? 같은 나라, 같은 지방 사람들이라도 지역에 따라 심지어 같은 마을이라도 동네에 따라 다른 말을 쓰기도 한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

---

16) 『史記』「太史公自序」. 漢興以來, 至明天子, 獲符瑞, 封禪, 改正朔, 易服色, 受命於穆清, 澤流罔極, 海外殊俗, 重譯款塞, 請來獻見者, 不可勝道.

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 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흠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흠으셨더라.<sup>17)</sup>

바벨탑 설화가 알려주듯이 사람은 원래 애초에는 같은 말을 쓰다가 차츰 인류가 분화하고 흩어지면서 말도 달라졌으리라.<sup>18)</sup> 원시공통어가 유일한 하나는 아니었을지 몰라도 적어도 소수의 언어가 갈라져서 오늘날 지구상의 수 천 수 만 언어로 분화했으리라. 언어는 어법 또는 문법의 유형이나 사용하는 민족의 계통에 따라 갈래를 지을 수 있으며, 유사한 갈래의 언어라면 어느 정도 의사소통도 가능하다.<sup>19)</sup>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아무도 외국어 학습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필

17) 『성경전서』 「창세기」 11: 1-9

18) 현생인류가 아프리카의 소수 여성에게서 기원했다는 지금까지 알려진 인류 진화의 패턴을 따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진화설에 비판을 제기하는 진화인류학자들도 있다. 그러나 인류의 기원이 한 곳이라 여러 곳이라 하더라도 인종이나 종족의 기원과 언어의 분화는 같은 궤적을 그린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역시 태초의 언어는 하나 또는 소수였을 것이다.

19) 현재 알려진 지구상의 어떤 언어와도 친연성이 없는 언어 역시 발견되어서 학계에 보고되고 있다. 다른 어떤 언어의 문법 체계와도 관련을 지을 수 없고 그 자체 고정된 문법체계도 없고 제3의 언어로 번역도 불가능한 언어가 실제로 있다고 한다. 이런 특수한 언어세계의 사례를 眞眞하게 보여주는 현장연구의 성과가 있다. 아마존 원주민의 언어, 그 가운데 특히 피다한(Pirahã)의 언어세계에서 30년간 문화인류학적 연구와 선교를 진행하고자 얻어낸 성과를 책으로 펴낸, 다니엘 에버렛/윤영삼, 『잠들면 안 돼, 거기 뱀이 있어』, 꾸리에, 2013를 참조하라. 이 책은 인간의 언어가 문화와 종족에 따라 얼마나 특수한 양식을 띠 수 있는지를 알려준다. 그러나 이런 아주 특수하고 특이한 언어의 경우를 들어서 현대 문명화한 세계의 언어와 번역의 논의에 반론을 제기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아주 고대사회부터 이민족끼리 교섭하면서 그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저절로 생겨나고 발전해온 언어의 융합, 번역과 통역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다.

요에 의해서든 사회적 부과에 의해서든 초중등 학교에서부터 영어를 비롯하여 제2, 제3 외국어를 공부해야만 한다. 태어나면서부터 이중언어나 다중언어의 환경에 노출되어 있지 않은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 모국어 체계가 갖추어진 상태에서 외국어를 접해야 하며 그런 상황에서 나중에 학습하는 외국어 언어체계는 기존 한국어 언어체계와 불가피하게 충돌을 한다. 그리하여 외국어 학습은 대부분의 학습자에게는 커다란 스트레스가 되고 중등학습 과정에서 험난한 장벽이 된다. 뿐만 아니라 취업을 하고 평생 생애의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외국어, 특히 영어의 압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외국어(특히 영어)를 잘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는 생존에 유리한 조건이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누구나 영어를 배워야 하기 때문에 여간해서는 변별이 될 만큼 탁월한 실력을 쌓기도 쉽지 않다.

우리는 주위에서 가끔 아무개는 몇 개 국어에 능통하다 하는 말을 듣는다.<sup>20)</sup> 한 나라 외국어도 제대로 하기 어려운 보통사람들 처지에서는 몇 개 국어에 능통하다는 말을 들으면 기가 죽기 마련이다. 그러나 외국어 공부, 조금이라도 진지하게 접근해본 사람이라면, 외국어를 남보다 잘 할 줄 안다고 해서 능통하다는 말을 쉽게 할 수가 없다. 사실 외국어를 잘 하고 못 하고는 객관적인 기준도 없다. 외국어 공부의 준칙은

---

20) 예를 들어, 인도유럽어족에 속하는 언어세계의 言衆은 조금만 노력하면 우리가 인도유럽어 언어를 배우는 것보다 훨씬 수월하게 여러 언어를 학습할 수 있다. 특히 같은 어군에 속하는 언어는 더 쉽게 익힐 수 있다. 로망스어군에 속하는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에스파냐어라든가, 게르만어군에 속하는 영어, 독일어, 스웨덴어, 네덜란드어 등 같은 어군에 속하는 언어는 서로 문법체계나 어휘에 친연성이 커서 애써 공부를 하지 않아도 조금만 익히면 웬만한 의사소통은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동아시아 나라들은 그렇지 않아서 한국, 중국, 일본은 서로 국경을 맞대고 유사 이래 빈번하게 교류를 해왔고 역사적 운명의 부침을 같이 겪었지만 체계적으로 학습을 하거나 상당 기간 체류하지 않으면 거의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다. 중국어는 아예 語族이 한국어와 다르니 차치하고라도, 일본어와는, 아직도 논란은 있지만, 같은 만주-통구스어계에 속하지만 상대적으로 의사소통이 쉽지 않다.

자기 감양에 맞게, 자기 목표나 목적에 맞게 공부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외국어 학습 과정에서 그 언어문화를 원하는 만큼 큰 불편 없이 향유할 수 있으면 그만이다. 언어는 남과 의사소통을 하는 수단이며, 자기를 표현하고 세계를 이해하는 창문이다. 외국어를 공부하는 목적은 외국의 문화와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며 외국어 세계를 이해하려는 것이지 아주 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서는 외국어 자체를 위해 외국어를 학습하지는 않는다.

외국어 공부는 일반적으로 교양을 갖춘 시민으로서 거쳐야 할 학습과정이라면 번역은 바로 이 외국어와 자국어 사이에 소통의 창구를 마련하는 일이다. 그리하여 번역은 다른 두 언어의 소통으로서 그 자체 목표가 아니라 과정인 것이다. 아무나 쉽사리 읽을 수 없는 외국어 텍스트를 자국어로 뒤집어서 옮겨줌으로써 언중이 그 텍스트를 읽고 그 세계에 들어가게 길잡이 역할을 하고 架橋 역할을 하는 것이다.

### 3. 헤르메스를 위한 변명

헤르메스는 번역(통역)의 신이기도 하다. 원래 올림포스의 신들과 지상의 인간들에게 주신主神 제우스의 뜻을 전달하는 傳令神인 헤르메스는 인간의 꿈에 나타나 한 인간에게 가해질 운명에 관한 제우스와 신들의 의지를 전한다. 전령의 사명은 원칙적으로는 전해야 할 명령의 내용을 100% 그대로 전달해야 한다. 전해야 할 명령의 내용에 조금이라도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서는 안 된다. 자기 생각을 집어넣는다는 것은 그 명령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한다는 말이다. 자기 해석을 명령에 집어넣게 되면 명령은 불가피하게 왜곡되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전령은 명령을 정

확하게 전달할 사명이 있다. 전달받은 명령을 해석하는 일은 전령을 통해 명령을 전해 받은 사람의 몫이다. 그러나 이는 전령의 이상일 뿐 실제로 명령을 전달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필연적인 왜곡이 일어나게 된다. 왜냐하면 명령자와 전달자는 같은 언어로 말을 한다 하더라도 저마다 자기의 말로 말을 하며 양자의 말이 만들어 낸 언어의 세계는 저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이 딜레마를 헤르메스는 제우스에게 이렇게 말한다. “아버지 제우스시여! 저는 아버지의 뜻을 최대한 그대로 전달하겠지만 온전히 그대로 전달한다고 자부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우스의 명령을 헤르메스는 자기의 이해력 안에서 들을 터이고 자기가 알아들은 대로 전달할 터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왜곡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철학의 한 분야인 解釋學(hermeneutics)은 바로 이 원래의 텍스트와 텍스트를 해석하는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오해/왜곡을 밝혀내는 학문이다. 사람은 의사소통을 하는 능력을 갖고서, 물론 동식물도, 심지어 원생생물조차도 아주 원초적인 수준에서 의사소통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타인과 의사소통을 하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한다. 의사소통은 언어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입으로 發話하고 귀로 聽取하는 음성 언어 이외에도 손짓, 발짓은 물론 소통 당시의 모든 상황이 총체적으로 작용을 한다. 또한 사람은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 상대방의 의사를 상대방의 관점에서 100%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관점에서, 자기가 이전에 지니고 있던 경험과 의식을 바탕으로 한 先理解(Pre-understanding)를 가지고서 받아들인다. 先理解는 先入見이나 偏見과 비슷하게 작용을 하기는 하지만 결코 先入見, 偏見과 같은 것이 아니다. 이전에 지니고 있던 체계화한 이해, 의식, 지식과 자기의 경험, 체험의 복합적 작용 같은 것이다. 이런 선이해의 구조가 모든 사람에게는 내재

해 있어서 어떤 말을 들을 때 작용을 하여 자기 나름대로 상대방의 의사를 해석하고 수용하는 것이다. 번역은 그런 점에서 번역자가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先理解의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sup>21)</sup>

번역은 외국어 공부를 하여서 상당한 정도의 수준을 갖춘 사람이라면 누구나 더 높은 수준의 외국어 학습을 위해서건, 생계를 위해서건, 연구역량의 토대를 쌓기 위해서건 한번쯤은 시도를 해보았을 것이다. 생계를 위한 전업 번역가가 아니라면 연구하는 학자들이라도 연구에 병행하여 번역을 꾸준히 또는 틈틈이 실행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번역 실태(?)가 오랫동안 우리 번역문화를 지배하면서 번역에 관한 경시의 풍조가 최근까지 학계와 문학계를 지배하였다. 특히 학술서적 번역의 경우에는 학문연구의 길에 이제 막 들어선 석, 박사 과정 대학원생이 연구역량을 익히는 차원에서 하는 학습의 일환, 또는 아직 전임 자리를 얻지 못한 강사가 생계를 위한 아르바이트 차원에서나 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리하여 번역을 그 자체 학문의 연구업적이나 또 하나의 창작으로 여기지 않고 상대적으로 저평가하여 왔다. 대학이나 연구재단에서 교수 및 학자의 업적평가를 할 때에도 수개월에서 수년 걸려 펴낸 번역서나 한두 달 만에 쓴 논문 한 편이나 같은 값을 받는다.<sup>22)</sup>

또 한편으로 우리 사회에서 번역을 경시한 풍조가 생기게 된 데에는 번역을 통역과 비슷한 역할로 생각하고 통역은 중인인 역관이 전담하는 일이라는 오랫동안 내려온 인습적 고정관념에서 비롯한 측면도 있다.<sup>23)</sup>

---

21) 물론 翻譯의 기본 지향은 저자의 뜻을 독자에게 가능한 한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전달하려는 것이다.

22) 그래도 지금은 여러 분야에서 학자들이 많이 배출되었고 또 이들 학자들이 생계를 위해서건 학자적 양심에 의해서건 저마다 자기 분야에서 중요한 텍스트를 원서에서 곧바로 번역해냄으로써 학문세계의 지면도 넓히고 학문의 질도 많이 높여 놓았다. 80년대에 처음 학문의 세계에 들어섰을 때 희랍어로 된 원전을 영어나 불어로 번역한 것을 다시 일본어로 번역한 것을 우리말로 번역한 플라톤전집을 보았던 처지로서는 격세지감을 금할 수 없다.

중고등학교 시절, 중등교육에서 영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견주어 상대적으로 중요성을 인정받지 못하여 自嘲的인 불평을 늘어놓던 국어와 문학, 역사와 윤리 분야의 연륜이 깊은 노선생들이 입버릇처럼 자탄하며 하는 말이 있었다. ‘영어는 중인인 역관이나 배우는 것이다.’ 깊은 학문을 하려면 문학이나 역사, 철학과 같은 전통 인문학을 해야 한다 하는. 영어를 잘 하면 그저 통역이나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안목이 좁은 편견이었다. 사실 개화기로부터 해방과 한국전쟁, 경제성장의 시기에 영어실력은 엄청난 자질이였다. 영어를 잘하면 취직도 잘 하고 출세도 잘 할 수 있다고 누구나 믿어 의심치 않았다. 실제로 그런 측면이 있었다. 전체 국민의 학력 수준이 낮은 저개발국가나 개발도상의 국가는 영어실력이 개인의 발전과 국가발전에 중요한 동력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외국어 능력을 단순히 통역의 분야로만 여기는 생각은 자기위안의 질시가 아니라면 아주 단순한 생각이다.

그런데 당시 중인이란 말의 의미가 우리 중등학생들에게는 어떤 울림으로 다가왔을까! 故 芝薰 趙東卓(1920-1968) 선생에 관한 일화이다.<sup>23)</sup> 선생이 고려대에 재직할 때 교수사회에서는 온갖 부조리한 일이 일어났는데 애국 지식인, 우국지사였던 선생으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을 저지르는 인사의 만행을 견디다 못해 욕이라도 해야 할 상황이면 그 대상을 일컬어서 ‘아무개는 필시 중인의 자식일세!’라고 했다고 한다.

嶺南에서는 양반 중의 양반이었던 경북 英陽 주실마을 漢陽趙氏 문중

23) 조선시대 儒敎經典과 佛經, 주요 역사서, 杜甫의 詩의 諺解는 오늘날의 번역과 같은 것이라고 하겠다. 諺解는 국가적 사업으로서 당대 최고가는 학자들이 학술역량을 傾注하여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리하여 諺解는 학문의 기초 토대를 쌓는 일로 여겨졌다. 그런데 口傳의 通譯은 中人인 譯官의 업무로 여겼다는 점은 한편으로 아이러니하기까지 하다.

24) 수 년 전에 고려대 출신 한문학자에게서 들은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는 여러 단계를 거쳐서 전해들은 터라 정확한 사실의 문제라기보다 선생의 인격에 관한 한 면모로서 설화적 요소를 갖는 내용이라 하겠다.

의 일원으로서 선생이 입에 담은 중인이라는 호칭은 蔑稱 중에서도 蔑稱이다. 같은 용어라도 누가 어떤 맥락에서 쓰느냐에 따라 뉘앙스는 천차만별이다. 三不借라고, 순수한 혈통으로 가계가 전승되었으며, 가문의 학문적 조예가 到底하고 雄深하여서 적어도 지역사회에서는 가문의 文氣가 찬란하며, 경제적 기반이 넉넉하여서 문중의 그 누구도 궁핍하여 남의 신세를 지지 않아도 된다고 자부하는 三韓甲族에 嶺南班家の 상징과도 같은 가문의 당당한 학자, 지식인, 우국지사인 그의 입에서 나온 ‘중인의 자식’이라는 말은 천박한 인간에 대한 가장 심한 모멸감과 인간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온갖 비열한 처사에 대한 최대한의 증오가 담겨 있는 말이다.

중인이란 三韓甲族의 양반뿐만 아니라 지방의 土班, 鄉班 들에게서도 蔑視와 嫉視의 兩價의 감정을 드러내는 호칭이다. 우리 역사에서 중인계층이 서양의 시민계급이나 부르주아와 동등한 시대적 과제를 수행한 것은 아니지만 전문직종의 기술을 지닌 사회생산의 주요한 계층으로서 사회변화의 동력에서 한 측면을 담당했으며, 중인의 활동과 그들의 문화가 시대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일조한 것은 사실이다. 중인의 역사적 의의에 관해서는 전문적인 연구의 분야에 속하지만 조선시대 중인의 역할은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필수적이었고 특히 역관은 조선시대 외교의 중심축인 중국과 왜(일본) 및 동북아시아 여러 나라와 국제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세계정세와 國際時勢의 변화에 가장 민감하였고 발 빠르게 대처하며 외교와 병행하여서 이루어지는 이른바 朝貢貿易 형태의 국제무역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기에 대대로 역관을 지낸 가계에서는 막대한 부를 축적하여서 국가 정치의 향방을 좌우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제정세의 변화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sup>25)</sup>

역관의 역할이 어떠했던 조선의 주류 지식인 사회에서는 역관을 중인이라고 하여 貶稱하였다. 학문의 고유한 사명이라고 여기는 시대의 가치를 지켜나가고 인륜의 보편가치를 이루어내기 위한 선구자가 아니라 개인의 이익을 위해 달려가는 역관의 발 빠른 행동과 그에 따른 막대한 이득에 대한 반감과 질시와 모멸감이 중인이라는 호칭에 복합적으로 들어 있는 것이다. 『論語』의 구절을 빌어 말하자면 上智와 下愚는 자기 처지와 역할을 옮기지 않는 셈이다.<sup>26)</sup> 늘 중간자들이 옮겨가면서 사회를 변화시켜 나아가는 법이다. 이런 ‘역관은 중인’이라는 고정관념이 얼치기 形而上學에 사로잡혀 있던 사춘기 청소년들에게 非現實的, 退行的 意識의 毒素을 슬그머니 뿌려놓아서 은연중에 영어나 다른 외국어에 느끼는 장벽을 넘지 못하는 자기의 실력을 위안하고 외국어학습의 중압을 회피하는 呪術이 되었던 것이다. 나도 그런 遁辭에 솔깃하여서 일급의 학문은 당연히 철학이나 신학이며 역사나 문학이야 말로 고상한 학문이고 영어에 힘쓰는 일은 역관이 되기에나 딱 알맞으니 정녕 영어를 배우더라도 마땅히 영문학을 하여서 윌리엄 셰익스피어(?-1616)의 비극이나 T. S. 엘리엇(1888-1965)의 시를 논할 일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때는 언어가 학문의 기초라는 사실은 조금도 생각하지 못했다. 본격적으로 외국어학습을 하고 외국어 텍스트를 공부하여서 번역하는 과정에서야 비로소 학문연구와 번역이 결코 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며 번역도 당당한 연구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번역물은 원작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다. 번역은 원작의 존재와 함께

25) 조선시대 壬辰倭亂 때 譯官 洪純彦(1530-1598)이 對明 외교에 참여하여서 明의 參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실은 野史에서 아주 인상적으로 형상화하여 있다. 조선 제19대 왕 肅宗(1674-1720 재위)의 繼妃 禧嬪張氏가 대대로 역관을 지낸 집안 출신이라는 사실도 널리 알려져 있다. 李肯翊(1736-1806)의 『燃藜室記述』 宣祖朝, 肅宗朝 故事와 별집의 譯官條에 관련 내용이 있다.

26) 『論語』 「陽貨」. 子曰, 唯上智與下愚不移.

출발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저자는 원본이고 번역자는 복사본인 셈인가!<sup>27)</sup> 그런데 번역은 과연 원작의 복제품, 복사본 또는 亞流(亞流)이기만 한 것일까? 번역은 원작의 존재를 전제로 한, 원작에서 나온, 그러나 父系의 혈통을 잇지 못하는 庶子이다. 그렇지만 이 서자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그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서’<sup>28)</sup> 또 하나의 家系를 이룬다. 원작은 원본 텍스트이지만 번역은 移植된 곳에서 그 자체가 또 하나의 텍스트가 된다. 마르틴 루터(1483-1546)의 독일어 번역 성서가 근대 독일어를 형성하였고, 영국의 제임스(King James I, 1603-1625 재위) 왕이 欽定한 성서가 근대영어의 형식을 정형화한 것처럼 기독교 성서의 한국어 번역은 근대 국어발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산스크리트와 빠알리어 불경은 중국인에게 익숙한 老莊 철학의 용어와 사상을 빌린 格義라는 방법으로 漢譯이 되어서 중국불교를 형성하였고 송대에 이르러 신유학의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아울러 불교 경전과 유교 경전, 중국의 역사서와 시가 한문 텍스트의 한국어 언해는 우리 국어의 발달과 국문학의 발달 과정에서도 막대한 역할을 하였다. 『박통사언해』, 『노걸대언해』는 고려시대에 나온 중국어 학습교재를 조선시대에 우리말로 발음을 달고 뜻을 풀이한 번역서로서 한국어 발달과정을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일 뿐만 아니라 중국어 발달 과정을 연구하는 데도 중요한 텍스트이다. 『용비어천가』는 원래 한국어 시가이지만 같은 내용을 한문으로 번역한 韓中對譯 텍스트인데 고전한

27) Edward Young(1683-1765)이라는 영국의 시인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우리는 모두 원본으로 태어난다. 그런데 왜 우리 가운데 많은 이들은 복사본으로서 죽는 것일까?”(최민숙·이은화·김연수·이경희, 『독일문학사』, 지식올만드는지식, 2023, p. 170. 재인용) 물론 이 발언은 예술창작의 독창적 직관을 높이 산 말이겠지만 번역에 적용한다면 저자는 원본이고 역자는 복사본인 셈이다. 번역은 특히 우리 사회에서 아직까지도 ‘복사본’으로서 폄하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28) 『성경전서』 「창세기」 12: 1.

문과 한국어가 얼마나 언어적으로 의사소통을 잘 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책이다. 『사서언해』나 『두시언해』는 한문 텍스트를 우리말로 옮겨서 대역을 해놓아 한국의 학문사상과 문학의 발전을 이끌어냈다. 그리고 이들 텍스트는 이미 우리의 고전이 되었다. 다른 언어로 된 원작은 번역의 과정을 거쳐서 한 문화에 이식되어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워서 花園을 다채롭게 꾸민다. 좋은 번역은 한 문화의 독창적인 창작품과 함께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새로운 문화를 일구어낸다.

한국 근대문학과 근대 아동문학의 발전도 일정 부분은 번역의 소산이다. 물론 번역이라 하여 100% 외국 것을 들여와서 逐字的으로 옮겨놓은 것은 아니다. 중국에서 불교의 발전에 格義의 과정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듯이 우리 문학(아동문학을 포함하여)의 발전에도 翻案의 과정이 개입하였다. 翻案은 너무나 동떨어진 두 문화가 섞이는 과도기의 과정이다. 『사랑의 선물』과 같이 서양의 民譚이나 전래동화를 우리 문화에 녹여낸 翻案童話는 차치하고 『너 참 불쌍타』, 『불쌍한 동무』, 『암굴왕』 류의 翻案을 거쳐서 『레 미제라블』, 『플랜더즈의 개』, 『몽테 크리스토 백작』으로 翻譯되면서 서양의 문학은 對自(anti-these)로서 우리에게 다가와 현대 한국문학으로 止揚(aufheben)을 이루어냈다. 외국의 원작은 우리말로 번역됨으로써 우리 문화에 새로운 피를 수혈하고 신선한 물을 공급한다.

나는 번역을 할 때 두 가지 전략을 취한다. 번역의 세계에서 늘 말하듯이 意譯이나 直譯이나 하는 선택의 문제라기보다, 의역이든 직역이든 목표는 똑같이 텍스트를 가장 정확하게 독자에게 전달하려는 것일 터이니,<sup>29)</sup> 아무튼 텍스트의 성격과 독자의 층을 감안하여 선택을 한다. 나

29) 번역에서 意譯, 直譯 논쟁은 번역이라는 문화적 행위의 시초부터 생겨난 케케묵은, 그러면서도 여전히 논란이 되는 문제이다. 요즘은 심지어 脈絡翻譯이라는 戰略으로

는 주로 학술서적을 번역하며 혹 교양서라 하더라도 주로 한문텍스트를 가공한 서적을 編述하는 편이다. 그리하여 학술서적을 번역할 때는 번역서가 또 하나의 텍스트가 될 터이니 문장이 우리말 어법에 조금 생경하거나 읽기에 낱낱하게 느껴져도 가능한 한 저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추적하려 한다. 그리하여 우리말로 옮겼을 때 문장이 길거나 擬古套의 어휘라 하더라도 가능한 한 살리려고 한다. 왜냐하면 원작의 텍스트는 원래 낯선 세계이며 번역을 통해 접근하는 한 원작의 세계가 풍기는 그 生硬한 분위기(뉘앙스)를 접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 단계라도 더 건너면 그만큼 해석의 여지가 늘어난다. 해석의 여지가 늘어나면 또한 그만큼 오해의 여지도 늘어나기 마련이다. 현대 독자와 소통하려는 목적에 따라 과거의 일상에서 쓰이던 용어를 현대적 용어로 기계적으로 바꾸어놓으면 맥락과 뉘앙스가 왜곡될 여지가 많다. 조선시대 지식인들이 서로 주고받은 편지를 생경한 용어가 많다고 해서 그대로 현대의 용어로 옮긴다면 원본의 세계에서 그 편지가 소통하던 의미와 버성기지 않겠는가! 심지어 ‘십분十分’, ‘십전十全’과 같은 용어를 100%라고 옮겨놓은 번역물

---

意譯, 直譯의 陣營對立에서 중립을 지키면서 원작의 의도를 최대한 전달하겠다는 旗幟를 내걸고 있지만 이 戰略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역시 直譯의 원내용을 최대한 다치지 않는 상태에서 意譯을 하겠다는 妥協策으로 생각된다. 차라리 어느 한 측면에 서는 것이 정직한 태도이며, 독자나 텍스트의 성격에 따라 상대적으로 한쪽에 좀 더 비중을 두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한다. 실제로 번역을 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번역자가 意譯을 하건 直譯을 하건 100% 한 가지 노선으로 일관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독일의 개신교 신학자이며 철학자인 Schleiermacher(1768-1834)의 다음 주장은 음미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그는 읽기 편하고 이해하기 쉬운 유창한 번역(흔히 사람들이 잘된 번역이라고 하는)보다 원작자의 出發語가 주는 ‘낯선 느낌(das Gefühl des Fremden)’을 到着語의 독자들이 그대로 느낄 수 있도록 번역해야 하며, 번역자는 유창한 모국어 능력을 자제해가면서 독자를 원작자에게 인도해야 좋은 번역이라고 한다. 그의 이러한 주장은 번역이 어쨌든 낯선 문화를 遭遇하는 최전선이기 때문에 他者の ‘낯섦’을 그대로 철저히 지각하고 받아들여야 卽自와 對自의 辨證法的 綜合止揚을 이룰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안삼환, 『한국 교양인을 위한 새 독일문학사』, 세창출판사, 2018, p. 318. 참조.

도 보았는데<sup>30)</sup>, 조선시대 선비가 서로 대화를 하거나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당신의 말에 100% 동의한다.’ 하고 말한다고 해서 현대의 독자가 원작의 세계에 녹아들 수 있겠는가! 텍스트는 어디까지나 텍스트이며, 번역은 번역이다. 번역이 아무리 원작의 세계에 접근한다 해도 무한접근만 가능하지 일치할 수는 없다.<sup>31)</sup> 그러나 독자층이 주로 청소년이나 교양을 넓히려는 보통의 시민이라면 한문 텍스트를 가능한 한 현대 우리말의 세계로 끌어들이려고 한다. 이런 경우에는 심지어 翻案에 가까운 패러디도 얼마든지 구사하여 중등교육을 받은 보통사람이라면 누구나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용어와 읽기 편한 문장, 깔끔하고 쉬운 글로 옮기려고 한다.

30) 일본의 번역문화에서는 고전 번역에서도 현대적 용어를 아무렇지 않게 쓰고 있다. 예컨대 退溪 李滉과 高峯 奇大升이 四端七情 논쟁을 하면서 ‘저는 선생님의 견해에 100% 동의합니다.’ 하고 말했다고 하자. 의미전달이라는 측면에서는 더할 나위 없는 번역이라 하겠지만 退溪나 高峯의 문집을 번역하여 원본의 책으로 출간할 때 이들의 편지 원문을 우리말로 옮기면서 100%라는 용어를 버 것이 쓸 수 있겠는가! 일본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나 내 생각에 退溪, 高峯의 문집 원본 번역서는 그 자체 일반 독자를 위한 書冊이 아니라 연구자, 학자를 위한 텍스트이다. 일반 독자를 위해서는 재가공을 하여서 더 쉽게 읽히게 하여야 한다. 문학작품의 번역이라면 다르다. 이 경우에는 독자가 원작의 분위기를 가능한 한 짙진하게 느끼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나는 아무리 완벽한 번역이라 하더라도 원작의 느낌을 그대로 우리 것으로 치환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완벽한 의사소통, 완벽한 대응, 완벽한 번역이라는 신화를 벗어버리고 원작과 번역의 영원히 건널 수 없는 강을 인정하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소박하고 정직한 번역의 태도가 아닐까! 그러나 변안의 경우라면 다르다. 변안은 원작을 빼대만 남기고 새로 살을 붙여서 낮익은 것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셰익스피어의 「리어왕」을 일본 전국시대의 한 영주의 이야기로 탈바꿈하여 만들어낸 쿠로자와 아키라(黒澤明) 감독의 영화 「亂」, 「맥베스」를 각색한 「蜘蛛の巣城」은 완벽한 셰익스피어 극이면서 완벽한 일본영화라는 찬사를 받는다.

31) 번역을 조금이라도 해보면 느끼는 바이지만 100% 저자의 의도를 전달할 수는 없다. 양자의 언어세계 차이 때문에 정확하게 번역할 수 있는 것과 직접 옮겨서는 맥락도 닿지 않고 의미나 뉘앙스가 달라서 注解를 달아 설명을 덧붙여야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따라서 좋은 번역은 원전의 우리말 번역과 함께 주해를 반드시 곁들여야 한다. 안재원, 『원천으로 가는 길 서양 고전 문헌학 입문』, 논형, 2019, 157-160. 참조.

나는 '아름답고 순수한 우리말'에 이념적으로 사로잡히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어떤 언어라도 '순수한' 언어는 없으며 어떤 언어라도 유기적으로 생성소멸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끊임없는 변화의 흐름 속에 있다. 또한 한 나라의 언어는 반드시 이웃 나라나 교류가 있는 나라의 언어문화와 소통을 하며 그 가운데서 어휘는 물론 심지어 어법도 영향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 언어도 조선시대 한문 고전 텍스트를 諺解하는 가운데 어법에서 한문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근현대에 이르러서는 일본어나 영어의 어법과 용어에 또한 많은 물이 들었다. 그러니 일본어 말투를 잘라내고 딱딱한 한자말을 바꾸고 순수한 우리말을 발굴하고 다듬어서 지키고 널리 퍼는 일은 그 자체 칭찬할 만한 일이지만 이데올로기로 고집할 일은 아니다. 만일 어떤 순수한 우리말 어휘가 아름답고 좋은 것이었는데 지금은 쓰이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그 좋은 어휘가 왜 지금은 쓰이지 않게 되었겠는가! 언어와 문화와 언중은 상호 유기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아무리 '순수하고 아름답다고 여겨지는' 말이라 하더라도 취사선택의 저울대를 벗어날 수 없다. 나도 번역을 할 때 때로는 檢閱機制가 작동하여서 순우리말주의자가 제시하고 지적한 대로 일본어나 중국어 또는 영어에서 유래한 번역어투, 혼합어의 사용을 기피하기도 하며 한편으로는 이전에 쓰이다가 지금은 잘 안 쓰이는 용어까지도 원문의 의미에 더 가깝다고 생각되면 살려서 쓰려고 한다.

번역을 할 때 어떤 과정을 거치는가 하는 문제에 정답은 없다. 어떤 사람은, 특히 소설이나 수필 같은 문학작품을 주로 번역하는 사람들이 취하는 방법인데, 미리 텍스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죽 읽고 나서 맥락을 이해한 다음 번역에 착수한다. 나는 번역하기로 한 텍스트를 대하면 미리 읽어보지 않고 우선 곧바로 번역에 들어간다. 원어와 번역어의 대응이 매끄럽지 않건, 우리말로 옮긴 내용이 어색하건, 전혀 이해하기 어려

운 용어나 맥락이 있건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번역을 해 나간다. 그런 다음 다시 처음부터 꼼꼼히 원문과 번역문을 대조해가면서 다시 번역을 한다. 이때 비로소 본격적으로 번역을 하는 셈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번역문을 읽어나가면서 어색하거나 틀렸다는 느낌이 드는 문장을 발견하면 다시 또 고친다. 이렇게 하여 탈고할 때까지 세 차례 이상 번역을 한다. 어떤 전략을 세우고 번역을 하든지 간에 정답은 없다. 자기에게 가장 익숙하고 자신 있는 방법을 따르면 된다. 어차피 번역은 至難한 일이며 기울인 노력에 견주어 빛이 나는 일도 아니다.

나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평생 학문의 길을 가리라고 다짐했다. 또래 아이들보다 언어감각이 조금 빨랐고 나름대로 똑똑하다는 소리를 들어서 문중의 기대와 선생님들의 촉망을 얼마간 받았다. 그리하여 나는 少陽의 기운이 뻗치는 어린 시절과 청소년 시절에도 또래집단에 어울려 악동의 장난도 즐기지 않았고 疾風怒濤(Strum und Drang)의 이유 없는 반항을 일삼지도 않았고 ‘밥보다 팝을 좋아한다.’고 너스레를 떠는 친구들을 따라 팝송을 듣고 기타를 들고 설치지도 않았다. 입시가 엄중한 고등 3학년 때도 단테(1265-1321)의 『신곡』과 괴테(1749-1832)의 『파우스트』를 읽었다. 나름 목전의 입시보다 학문과 교양을 쌓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입시는 어떻게 보든 대학은 가겠지 하는 근거 없는 자신감과 지적 오만이 작용한 탓일까!

대학에 들어가서도 영어와 제2외국어로 익혔던 독일어는 여러 전공 강의에 늘 따라다녔지만, 그리고 2학년 때부터 동양철학에 관심을 두고 한문 텍스트를 읽게 되면서도 그냥 상황에 따라 그러저러 텍스트를 더듬대며 읽는 정도였고, 선배들이 동양철학을 공부하려면 일본어를 공부해야 한다고 조언을 하여서 일본어를 배우기는 했지만 몰두해서 공부하지는 않았다. 철학을 공부하려면 언어학습에 시간을 들이기보다 철학 저술

을 읽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도 안 되는 신조에 매달려 있었던 것이다. 그러다 당시 장안의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洛陽의 紙價를 올려놓은 『동양철학 어떻게 할 것인가』와 일련의 김용옥 교수의 저술을 읽고서 학문의 실력은 실은 언어(국어를 포함한)의 실력임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병역을 마치고 박사과정에 들어간 뒤로 전공 연구와 병행하여서 본격적으로 영어와 일본어, 중국어, 독일어, 프랑스어 학습에 몰두하였다. 이들 외국어는 모두 내가 읽고 싶었던 텍스트를 읽고 번역하고 연구하는데 토대가 되었다.

외국어 학습의 성과를 바탕으로 맨 처음 번역한 책은 『중국철학우화』 시리즈이다. 원래는 중국 대륙에서 나온 책이다. 당시만 해도 중국과 직접 교류가 어려운 때였는데, 지도교수가 대만에 연구교수로 1년간 가 계시다가 돌아올 때 가져온, 대만에서 새로 찍은 네 권짜리 한 질이었다. 중국 고전의 우화적 성분이 강한 이야기를 모아서 짤막한 설명을 덧붙인 책이다. 지도교수는 이 책을 번역하여 청소년 도서로 보급하면 좋겠다고 하셔서 박사과정을 수료한 선배와 함께 번역을 하여서 네 권을 차례로 출간하였다. 각 권의 제호는 각각 『돌부리에 채이고 가시에 찢리고』, 『소금수레 끄는 천리마』, 『깃발인가 바람인가 마음인가』, 『진흙인형의 탄식』이다. 漢詩의 문화에서는 詩讖이라는 말이 있는데, 아주 어릴 때나 청소년기에 쓴 시가 그 사람의 운명을 예고한다는 俗信이다. 한국과 중국 역대 시참의 사례를 모아보면 제법 그럴듯하여서 신기하기까지 하다. 아무튼 지금 와서 돌아보면 나와 선배가 처음 학문의 길로 들어서서 번역하여 낸 책이 하필이면 시참과도 같이 내 삶을 예언한 것 같기도 하여서苦笑를 머금게 한다. 이어서 중국어 텍스트를 번역한 『상수역학』은 兩漢의 역학을 다룬 책으로서 원래 高懷民이라는 대만 학자가 쓴 역학사 시리즈의 둘째 권인데 지도교수와 대학원 세미나 과정에서 공동으로 번

역하여 낸 첫째 권 『선진역학사』에 이어서 나온 책이다. 이 책은 양한의 역학을 다룬 텍스트로서 당시에는 관련 전문서적이 없었기에 역학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도움을 주었다고 자부하는 바이다.

내가 어릴 때 이탈리아의 소년문학 작품인 에드문도 데 아미치스(1846-1908)의 『쿠오레』가 불문학자 안응렬(1911-2005) 선생의 번역으로 『사랑의 학교』라는 이름을 달고 나와서 청소년의 필독서처럼 읽혔고 심지어 초등학교 4학년 때 교과서에도 이야기 한 꼭지가 수록되기도 하였다. 이 책을 번역 소개한 안응렬 선생은 초기 1세대 불문학자이며 불문학과 가톨릭 관련 프랑스어 서적을 많이 번역하였다. 내 유소년의 관념 속에 프랑스나 유럽은 선진문화의 나라이며 기독교(가톨릭) 문화의 나라였기에 대학에 다닐 때까지도 프랑스나 서부유럽에서 동양학 연구의 수준이 깊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런데 김용옥 교수가 사회학적 연구방법론을 원용하여 『詩經』의 國風을 해석한 마르셀 그라네(1884-1940)의 『중국의 고대 축제와 가요』라는 책이 현대 『시경』 연구의 신기원을 이루었다고 소개를 하였다. 四書三經의 하나로만 알고 있고 동양의 선비와 학자들이 늘 가까이 읽는 그렇지만 까마득한 옛날의 시가로만 알고 있던 『시경』을 서양 사람이 연구했다고 하는 사실도 놀라운 일이거니와 그의 연구가 『시경』 연구에 새로운 전기가 되었다는 언급에 경악을 금치 못하였다. 그리하여 관심을 갖고 서양의 동양학 수준을 조금씩 들여다보니 이미 서양에서도 17세기 이래 동양에 깊은 관심을 지니고서 동양의 고전을 번역하고 연구를 하였으며 동양의 사상이 근대 서양의 학문과 사상 발전에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심지어 19세기, 20세기의 프랑스를 필두로 한 유럽의 동양학 수준은 동양학자들을 능가할 정도가 아닌가! 이에 자극을 받아, 마침 당시에는 『시경』에도 관심이 있어서 박사학위의 연구 주제로 삼을까 생각도 한

적이 있었기에, 어쩌면 오로지 그라네의 이 저술을 번역하려고 불어공부를 하였다.

불어공부가 어느 정도 되어가던 무렵 마침 선배가 출판사의 의뢰로 앙리 마스페로(1882-1945)라는 프랑스 학자의 『도교와 중국종교』라는 책을 번역하기로 하였다. 원래는 영어 번역서를 텍스트로 하여 선배가 지인과 함께 번역하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도중에 선배의 지인이 손을 떼어서 내가 대신하여 번역에 참여하였다. 나는 불어를 공부하기는 하였지만 아직 번역할 수준은 되지 않았기에 먼저 일어 번역서를 참조하여 번역하고 불어로 대조하여 바로잡아서 책으로 출간하였다. 그 뒤 불어를 처음 공부하도록 자극한 『중국의 고대 축제와 가요』의 번역에 착수하였다. 이 책 역시 일본어판을 중심으로 보았으나 불어원전을 충실하게 읽는 과정에서 일본어 번역의 오류를 몇 군데 발견하여 우리말 번역에서는 이를 바로잡았다. 이 책이 처음 프랑스에서 나온 때는 1919년이고 일본에서 번역된 때는 1938년인데 우리말 번역은 2005년이 되어서야 나왔다. 일본과 우리의 외국(서양)의 학문성과를 수용한 역사는 이렇게 차이가 난다.

나는 이제 철학을 연구하여 나름의 이론을 세운 철학자가 아니라 철학, 인문학에 관한 서적을 번역하는 중인인 셈이다. 그럼에도 동양철학, 그 가운데에서도 조선유학을 전공한 학자로서 이름을 부끄럽게 하지 않았다고 자부하는 책은 『성학집요』이다. 『성학집요』는 栗谷 李珥(1537-1584)의 主著로서 조선 유학의 학문성과를 가장 알뜰하게 집약한 책이다. 이 책이 나오으로써 조선의 유학이 중국의 유학을 어떻게 소화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 책은 나중에 중국에까지 소개되어서 조선의 학문수준을 팔목상대하게 하였다. 이 책의 번역서는 울곡의 철학을 공부하거나 조선시대 유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물론 정치에 관여하는 사람, 교

양을 쌓으려는 일반시민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관심을 끌었다.

그리고 『책문-시대의 물음에 답하라』, 『경연-왕의 공부』와 『고전이 된 삶』은 고전 텍스트를 저본으로 가공하여서 일반 시민의 교양도서로 다듬어낸 책이다. 『책문』은 조선 선비들이 과거시험 최종 단계에서 제출한 답안 양식인 책문 가운데 현대사회에도 여전히 시의성을 갖는 주제를 다룬 글을 여러 문집에서 발췌하여 텍스트로 삼고 그 책문을 둘러싼 학문적, 정치적, 사회적 맥락과 제출자의 생활세계를 들여다봄으로써 오늘날 우리사회의 문제를 우회적으로 성찰하게끔 기획한 책이다. 『경연』은 조선 유교사회를 이끌어 온 제왕의 유교적 교육시스템을 소개하는 책이다. 조선의 왕들은 그저 제왕적 권력을 누린 절대군주, 전제군주로만 알고 있던 우리 사회의 상투적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조선의 왕들이 한 시대의 주역으로서 어떻게 역사의 책임을 떠맡고 인민의 삶을 책임지려고 노력했는가, 그러한 제왕의 덕목을 갈고 닦기 위해 어떻게 수양을 하고 학습을 했는가, 그리고 우리는 민주시민 사회의 주역으로서 어떤 역사의식과 사회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를 성찰하게 한다. 『고전이 된 삶』은 일본 학자의 책인데 원래 시민교양을 목적으로 기획한 시리즈 가운데 중국의 역대 문장가 열 사람을 선별하여서 삶과 문학세계를 간략하게 소개한 책이다. 처음에는 원서 그대로 번역하여서 모 출판사에서 냈다가 해당 문장가의 실제 문학작품을 함께 감상하자는 취지에서 일어 원서를 재번역하고 본문에서 언급된 문학작품을 찾아서 번역하여 수록하였다. 그리하여 문장가의 삶과 문학세계를 입체적으로 접할 수 있게 하였다.

『주자평전』과 『왕양명평전』은 각각 동아시아 유학의 역사에서 공자 이래 가장 중요한 두 사상가의 일생을 추적한 전기를 번역한 책이다. 우리에게 주자로 알려진 주희(1130-1200)는 조선시대가 주자학의 시대

라 하리만큼 공자, 맹자와 함께 거론되는 학문세계에서 절대권위의 현자이지만 우리는 실제로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잘 알지 못한다. 이 책의 원저자는 위대한 학자의 학문과 사상은 그의 생활세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전제 하에 삶의 片鱗까지도 낱낱이 추적하여서 주희의 삶을 재구성하였다. 이 번역서가 나올 때까지도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학자가 주자의 생애를 추적한 전기는 없었으며 일본인 학자가 쓴 얇은 전기 한 종이 있었을 뿐이다. 그리고 왕수인(1472-1529)은 주희와 함께 동아시아 신유학의 양대 산맥을 이루며 어떤 의미에서는 신유학의 흐름이 도덕 주체성의 내면을 향한 지향이라고 볼 때 그 정점을 이룬 학자, 사상가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철학계에서는 조선시대 주자학의 관성이 아직도 얼마간 남아 있어서 양명학 연구의 토양이 두텁지는 않다. 또한 중국은 물론 일본에서도 왕수인에 관한 관심이 지대한 데 반해 우리 사회에서 왕수인 개인과 양명학에 관한 관심 또한 그리 깊지 않다.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도 소장학자들의 연구가 쌓이면서 차츰 양명학이 주자학에 필적할 만한 학문세계를 구축해가고는 있지만 아직은 더 역량을 다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 왕수인에 관해서도 더 자세히 알아야 한다. 중국과 일본에는 왕수인의 전기가 여러 종이 있고 지금도 꾸준히 다양한 형태로 나오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에 관한 전기다운 전기가 아직도 없는 형편이다. 아무튼 앞으로 이 두 책을 바탕으로 주희와 왕수인의 삶과 학문과 사상을 우리나라 문화사의 시각에서 재평가하여 우리 시각으로 보는 주희와 왕수인으로 빛어내는 우리의 당당한 주자와 양명의 평전이 나오기를 바라는 바이다.

#### 4. 『주자평전』과 『왕양명평전』 번역 전말과 소회

저자 東景南(1945-) 교수는 중국 江蘇省 丹陽 사람이다. 1968년에 南京大學 역사학과를 졸업하였고, 1978년에 復旦大學 중문과에 들어가서 대학원에서 중국 고대문학을 전공하였다. 1981년에 문학석사 학위를 받았고, 곧 蘇州大學에서 교육을 담당하였다. 1992년에 교수가 되어서 고대문학 연구 주임, 中華文化研究所 소장으로 재직하였다. 1995년에 浙江大學으로 옮겨서 浙江大學 古籍研究所, 中外文化交流센터, 宋學研究센터의 교수 및 박사지도교수를 역임하였다. 문학, 역사, 철학을 두루 연구하였으며 1968년부터 1978년까지는 문학 창작에도 종사하여서 문학작품을 발표하였다. 1978년 이후로는 문학과 철학, 미학의 연구에 종사하였다. 대학원 과정 연구생으로 있을 때 중국을 대표하는 철학저널에 논문을 발표하여서 주목을 끌었다. 1982년 이후 宋明理學, 經學, 易學, 불교 및 도교 등에 관한 연구 논문 100여 편을 발표하였으며, 만년에는 주희의 연구에 천착하여서 『朱子大傳(주자평전)』, 『朱熹佚文輯考』, 『朱熹年譜長編』의 주자학 삼부작을 저술하여서 주자학 연구의 가장 밑받침이 되는 초석을 놓았으며 또한 주자학 연구의 최고봉에 올랐다. 주자학 연구로 정립한 방법론을 더 발전시키고 또한 주자학 연구 성과를 토대로 신유학의 정신을 고도로 집약한 양명학 연구에 매진하여서 『陽明佚文輯考』, 『陽明年譜長編』, 『陽明大傳』의 양명학 삼부작의 저술에 몰두하여 삼위일체의 양명학 연구의 금자탑을 쌓았다.

『朱子大傳』은 중국도서상, 국가도서제명提名상, 교육부 인문사회과학 2등상, 세계대극과학 금상을, 『朱熹年譜長編』은 浙江省 정부 철학사회과학 1등상, 上海市 우수도서 1등상을, 『朱熹佚詩佚文全考』는 전국

古籍整理 우수도서 1등상, 國家圖書提名獎을 획득하였다. 東景南 교수는 서예에도 대가로서 자기의 독특한 서체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통악기인 二胡의 연주에도 탁월한 기량을 발휘하고 있다. 탁월한 업적을 쌓은 사람에게는 거의 예외 없이 반은 신화적인 이야기가 따라 붙는다. 東景南 교수에게도 남의 이목을 놀라게 하는 신화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대학을 다닐 때 四庫全書를 다 독파한 유일한 사람이었다고 한다.

내가 『주자평전』을 번역한 계기는 다음과 같다. 2000년대 초반, 책한 권으로 허명을 얻어서 출판계에 이름이 조금 알려졌다. 그 무렵 내가 주도하던 공부모임 회원 한 사람의 동생이 출판사 편집자인데 『성학집요』 번역자를 구하고 있었다. 그 회원의 소개로 출판 편집자를 만나서 『성학집요』 번역 계약을 맺고서 작업을 진행하는 도중에 편집자가 이어서 東景南 교수의 『朱子大傳』을 번역하여서 출판하고 싶다고 하였다. 이 책은 이미 동양학계에서는 해적판으로 거의 다 갖고 있는 책이었지만 워낙 두껍고 문장이 난만하고 어려워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나 전공자라도 드문드문 필요한 부분만 읽었을 뿐이었고, 학자로서 이 책이 가진 학술적 중요성과 가치를 인정하여 번역을 하고 싶어도 아무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편집자의 무식한(?) 용기에 고무되어서 선배와 들어서 번역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2005년부터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사료연구원 자격으로 학술진흥재단 공모과제 사업인 『備邊司謄錄』 번역에 몰두하느라 번역에 손도 못 대고 있었다. 저자에게 너무 송구하여서 2006년에 초빙하여서 모교에서 강연을 주선해드리고 안동을 중심으로 한 유교문화권 순방을 시켜드렸다. 그러나 결국 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착수를 못하였고, 기획을 했던 출판사에서조차 마침 출간을 포기하는 바람에 2009년도엔가 다시 杭州로 가서 東 교수를 만나서 저간의 사정을 말씀드리고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신다면 번역을 마무리 짓겠노라고 제의를 하였다. 반신반의 하면서도 수록만리 외국에서 찾아온 정성이 가늠해서인지(?) 출판사가 나서면 다시 시작해보자고 하였다. 그 뒤 국사편찬위원회 일이 마무리 되어갈 무렵 2010년에 지금의 출판사와 정식계약을 맺고 번역에 착수 하여서 5년 만에 완성되어서 마침내 발간을 하였다.

초벌번역 기간만 꼬박 3년 남짓 걸렸고, 재번역, 교정, 운문 등에 또 1년여를 쏟았으며, 제작기간만도 1년가량 되었다. 그리하여 2015년 9월에 책이 나왔다. 그 사이 속 교수와 서신왕래는 물론 직접 찾아가서 수정을 받은 것도 두 차례이다. 서신으로는 말끔히 풀리지 않았던 문제를 많이 해결하였다.<sup>32)</sup>

당초 『주자평전』 번역에 다시 도전하려고 중국 현지의 안내를 맡아주었던 후배 同學의 소개로 중국 杭州에 가서 束 교수를 만나 뵈었을 때 속 교수는 이미 양명학 연구에 천착을 하고 있다고 밝히셨다. 同學이 주자학을 연구하여서 前人未踏의 성취를 하셨으면서 어쩌면 학문적으로 대립되기도 하는 양명학에 관심을 두고 계시는 까닭은 무엇인가 하고 여쭙었다. 束 교수는 학문 이력의 초기부터 양명학에 관한 관심을 지니고 있었다고 하셨다.<sup>33)</sup>

---

32) 束 교수와 학문으로 교류하면서 느낀 바를 간략히 사족으로 덧붙인다. 우리나라는 학문의 토대가 빈약하다. 학문을 하는 사람이 없거나 학자의 수준이 낮다는 뜻이 아니다. 바로 사회가 학문을 더 이상 존중하지 않으며, 학자들 또한 더 이상 학자로서 자긍심과 자존심을 지니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모든 것이 교환가치를 지닌 물질로서만 자기 존재이유를 인정받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불가피한 일인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선비정신이니, 지식인의 양심이니, 하는 말들은 이제는 퇴행적이고 복고적인 향수에 불과하리라. 속 교수가 주자학, 양명학 분야에서 신기원을 이루고, 학자의 양심과 지조를 온전히 지켜갈 수 있다는 점이, 그리고 학자로 하여금 자기 학문의 세계를 넓혀가고 깊이를 더해가게 할 수 있는 사회풍토가 부럽다. 이에 더욱 명암의 대비를 이루며 중첩되는 우리나라 학문과 학자의 현실이 안타깝다.

33) 한국어 번역을 마치고 제책 과정에 있어 未刊인 『왕양명평전(陽明大傳)』의 저자 머리말에 소상히 밝혀두었는데 그의 일생 학문적 관심은 궁극적으로는 王守仁의 인문주의 정신을 규명하는 데 있었다고 한다.

『주자평전』을 출간한 뒤 두어 차례 중국에 가서 東 교수를 만나 뵙고 평전 번역의 답례로 과분한 향응을 대접받기도 하고 杭州를 중심으로 한 강남 문화를 답사하기도 하였다. 그러면서 東 교수의 후속 작업을 참관하였다. 틈틈이 東 교수는 양명학 연구의 성과를 편지로나 또 출간한 저술로 알려주셨다. 그러다 마침내 『陽明大傳』을 완성하였다고, 언제 杭州를 다녀가라고 청하셨다. 서둘러 杭州에 가서 東 교수를 찾아보니 아직 출간하기 전 원고를 제본한 두툼한 복사본을 내주셨다. 東 교수께서는 하루라도 빨리 한국어로 번역하여 출간하기를 원한다고 하셨다. 그리하여 몇 학자가 팀을 이루어서 번역을 하면 어떠한가 하고 물어보셨다. 그런데 내 번역의 경험상 두 사람이 동일한 텍스트를 나누어서 번역하는 경우에는 그런대로 소통이 이루어져서 번역의 품질에 큰 문제가 없지만 세 사람 이상으로 늘어나면 번역의 품질은 차치하고 용어의 통일, 문체의 통일, 出典과 注釋의 취사 문제 등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 대부분 대작의 경우 처음에는 몇 사람이 팀을 이루어서 번역을 시도한다. 그러나 경험이 쌓인 번역자라면 혼자 작업하는 것을 선호하는 편이다. 순수 한문고전 텍스트의 경우에는 흔히 다수의 학자가 팀을 이루어서 번역을 하기는 한다. 그러나 내막을 들여다보면 참여자의 수준이 제각기 다른 터라 고른 번역의 품질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래도 순수한 한문텍스트의 경우에는 한문원문을 우리말로 옮기면 되지만 현대 중국 학자가 쓴 텍스트의 경우에는 한문원문의 번역에 더하여서 중국학자가 해석한 중국어 텍스트를 아울러 번역을 해야 하는데 이는 한문원문 텍스트만 번역하는 것보다 일이 더 늘어난다. 고전한문은 물론 현대 중국어에 익숙해야 하고 한문과 우리말, 중국어와 우리말의 관계를 탐색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나는 東 교수께 열일 짓혀두고 오로지 이 일에 몰두하여서

하루라도 빨리 번역을 하여 오래 기다리지 않게 하겠노라고 호언장담 하였다. 귀국을 하여 조금 마음을 추스른 다음 2018년 동짓날부터 본격적으로 번역을 시작하여서 3년 반 만인 2022년 상반기에 일단 번역을 완성하여 탈고하고 출판사에 넘겼다. 전언에 따르면 2022년은 왕양명 탄신 550주년이라 중국에서는 양명학과 왕양명에 관한 대대적인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하였다. 東 교수께서는 한국어 번역서가 출간되면 국제양명학대회에 소개하고 싶다고 하셨다. 그러나 이제 갓 번역을 마치고 편집과 제책의 기간이, 『주자평전』에 견주어, 한 1년 이상 걸릴 터라 확답을 드리지 못하였다. 지금 생각하면 假本 형태라도 보내드렸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지만 국제적 성격의 학술대회에 가본을 제출한다면 구차스러울 듯도 하고 또 공명심을 벗어나지 못한 듯한 자책도 들어서 단념하였다. 한국에서도 당년에 陽明學會에서 연례행사의 양명학 국제학술대회와 평가 성격의 陽明學者 대회를 개최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아직 책이 완성되어 출간되지 않은 탓인지 『왕양명평전』 번역에 관해 간접적으로 양명학 관계자에게 전언했으나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다. 조선성리학 전공자가 왕양명의 전기를 번역한다고 설친 탓인가!

여기서 東 교수가 저술한 朱熹, 王守仁의 평전이 다른 관련 전기적 저작물과 차별을 보이는 美德을 한 마디 덧붙여두고자 한다. 우선 우리나라에서는 두 사람의 전기적 생애에 관한 우리나라 학자의 저술이 드물다. 생애를 더듬은 텍스트라 하더라도 사상을 서술하기 위한 일환으로 附記한 것이라 한 세계사적 인물이 살아간 삶의 궤적을 상세히 밝힌 것이 아니다. 문화사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학자나 사상가의 학문, 사상을 이해하려면 관념적 사상의 세계를 더듬기 전에 당사자의 생활세계와 그 인물이 구체적으로 살아간 시공간을 속속들이 들여다보아야 한다. 東 교수는 朱熹와 王守仁의 학문 사상을 연구하는 것보다 이들의 생애를 입체

적으로 밝혀서 학문과 사상이 胚胎되고 生成하여 성장해간 과정을 추적하였다. 정보가 절대 제약이 있었던 조선시대는 차치하고 현대에도 학자들은 여전히 이들의 학술사상을 천착하고 변태하게 분석하는 일에 몰두한다. 그러나 이제는 어떤 탁월한, 막대한 영향을 끼친 학술을 연구하려면 먼저 대상 사상가의 실존적인 삶을 먼저 재구성하고 인간학적 측면에서 이해를 선행해야만 한다.<sup>34)</sup> 束 교수의 전기 二部作은 이제 동아시아 학문사상의 양대 산맥을 답과하기 위한 指南의 역할을 할 것이다.

저자의 원문은 매우 蔓衍體, 華麗體의 문장으로서 단락마다 구절마다 懸河의 辯을 도도하게 펼쳐서 마침표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긴 문체가 끝도 없이 이어진다. 典故를 자유자재로 갖다 쓰고 주장을 현란하게 펼쳐서 문체에 익숙하지 않으면 맥락을 따라가기도 버겁다. 그러나 독특한 문체가 어느 정도 눈에 익으면 대상 인물에 대한 애착이 구절마다 글자마다 오롯이 드러난다. 그리하여 번역을 할 때에도 가능한 한 저자의 호흡을 따라가면서 저자의 이야기를 한 자리에서 듣는 듯이 문체를 이어나갔다. 글을 쓸 때에는 거의 무조건 短文으로 끊는 것이 미덕인 시대이지만 글은 전적으로 의사소통의 목적에만 예속되지 않는, 글 나름의 개성이 있어야 하고 저자만의 특유한 문체가 있기 마련이다. 이른바 可讀性이라는 굴레에 사로잡혀서 의사전달로 기능을 제한하다 보니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실용성의 글은 물론 저자만의 향취가 풍겨야 할 문학적 글조차도 단편적인 선언의 글처럼 되고 말았다. 두 평전의 번역서는 읽기에 결코 친절한 책이 아니다. 쉽게 읽을 책은 쉽게, 어렵게 읽어야 할

---

34) 王守仁의 생애에는 귀양 과정에 潛迹했던 사건이 일종의 신화적, 설화적 이야기가 되어서 그의 삶을 신비하게 만들고 있는데, 이런 해석은 문학적 양식으로서 의미를 가질 수는 있지만 王守仁의 생애와 사상을 재구성하는 데는 오히려 障礙가 됨을 면치 못한다. 지금도 일부 王守仁의 전기는 이런 설화적 이야기를 버젓이 실어서 그의 생애를 신비화하고 있다.

책은 어렵게 읽어야만 한다. 하물며 당대의 현실에서 가장 치열하게 산 두 위인의 생생한, 피가 뛰는 삶을 고스란히 그려놓은 전기임에랴!

## 5. 驥尾千里

司馬遷의 『史記』는 동아시아의 본격적 역사텍스트의 효시로서뿐만 아니라 紀傳體라는 역사서술 양식에서도 독특하고 입체적인 체제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기전체를 구성하는 한 축인 列傳은 역사를 움직여나간 다양한 인간군상의 면모와 역사에서 담당할 역할을 증언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의가 있다. 그런데 열전이라 하면 흔히 개인의 생애와 활동을 서술한 傳記(biography)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열전은 해당 주인공의 생애를 서사적으로 구성한 기록, 곧 근대적 문학 장르의 전기는 아니다. 열전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전기가 아니라 주인공의 생애와 활동에서 꼭 전해야만 할 가치가 있는 내용을 전하는 일종의 전설인 셈이다. 그런 점에서 열전을 통해 어떤 역사적 인물의 생애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려면 곧 난관에 부딪힌다. 가장 상세하게 기술되었다고 할 수 있는, 본인의 열전에 해당하는 「太史公自序」조차도 생애를 객관적으로 재구성한 서술이라기보다 자기 생애 가운데 꼭 후세에 전하여서 남겨놓고 싶은 사건을 위주로 한 증언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열전의 각편은 사실상 소설적으로 구성된 문학작품이라 할 수 있다. 사마천이 열전을 이와 같은 체제와 양식으로 구상한 까닭에는 나름대로 야심찬, 또는 처연한 기획이 담겨 있으니 그의 생애를 상징하는 비극이 그로 하여금 열전이라는 독특한 체제로 역사를 재구성하게 한 근본 원인이라 하겠다.<sup>35)</sup>

열전의 첫 주인공은 伯夷이다. 백이는 사마천이 자기와 동일시를 하는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다. 백이라는 인물의 열전에서 사마천은 개인의 행위와 역사적 보응의 너무나 현격한 불일치에 자기 울분을 섞어서 피맺힌 절규를 토로하였다.<sup>36)</sup> 사마천은 이들 역사에 희생되어서 신원을 얻지 못한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 대신 변호하고 갈가리 찢긴 삶의 片鱗을 주워 모아서 그 의의를 제대로 인정하고 정당한 평가를 받게끔 증거를 남겨놓고자 하였다. 사마천이 백이나 공자, 굴원과 같은 사람의 전기를 특별히 인상적으로 구성한 데는 이러한 의도가 있었는데 이들을 위한 변명은 실은 자기를 위한 변명이었던 것이며 자기 이름을 후세에 남겨놓고자 하는 원대하고도 처연한 야망이 있었던 것이다.

백이의 열전에서 사마천은 다음과 같은 인상적인 비평을 곁들인다.

군자는 세상을 마친 뒤 이름이 일컬어지지 못함을 괴로워한다. 가 선생(賈誼)이 말하기를, ‘탐욕스러운 사람은 재물을 추구하고 열사는 명예를 추구하고 과시욕이 있는 자는 권력 때문에 죽는다. 못 서민은 생존에 매달린다. 같은 발광체는 서로 비추고 같은 부류는 서로 구한다. 구름은 용을 따르고 바람은 범을 따른다. 성인이 일어나고 만물이 제 모습을 드러낸다. 백이와 숙제는 비록 현자였지만 부자가 계셨기에 이름이 더욱 빛났다. 안연은 비록 배움을 독실하게 하였지만 천리마의 꼬

35) 司馬遷이 列傳이라는 일종의 문학작품을 저술하게 된 동기는 고통이며 그 목적은 불후의 명성을 획득하려는 것이라 하는 해석이 있다. 매우 타당성 있는 해석이라 하겠다. 朴惠淑 編譯, 『司馬遷의 歷史認識』, 한길사, 1988, pp. 304-305. 참조. 또한 司馬遷이 특별히 공을 들여서 구성한 列傳으로는 伯夷, 孔子, 屈原(343-278.B.C.)과 같이 시대의 버림을 받아 억울한 분노가 쌓인 고귀한 영혼의 소유자이다. 孔子의 경우는 따로 「仲尼世家」로 갈무리되어 있는데, 이 작품은 司馬遷의 『史記』의 특징과 사상을 가장 잘 드러내는 편이라 한다. 司馬遷은 孔子를 자기 삶의 준거로 삼은 듯이 보인다. 司馬遷은 孔子 생애의 의의를 『春秋』의 저술을 통해 포착하였고, 孔子가 현실에서는 실의와 좌절을 겪었지만 사후에는 저술로 영예를 얻고 聖人으로서 승화한 데에서 자기 저술의 목적과 의의와 이상을 觸發받은 것으로 여겨진다. 위의 책, pp. 316-323. 참조.

36) 『史記』 「伯夷列傳」. 儻所謂天道, 是邪非邪!

리에 붙어서 행실이 더욱 뚜렷해졌다. 바위굴에 숨은 선비가 쓰이거나 버려짐에 시운이 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夫子와 같은 성인을 만나지 못해) 이름이 사라지고 일컬어지지 않으니 슬프다. 여항의 사람들이 행실을 날카롭게 버려서 이름을 세우고자 하나 靑雲의 선비에 붙지 않으면 어찌 후세에 이름을 떨치겠는가!<sup>37)</sup>

나는 청운의 뜻을 품고 학문의 길로 들어섰다 제대로 학문을 갈고 닦지도 못하고 존재감도 없이 살았으나 고명하신 학자의 웅대한 저술을 번역하여 마치 천리마의 꼬리에 붙어 천리를 가듯 이름 석 자를 겨우 갖다 붙이는 처지이다. 그러나 이름을 추구하여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허망한가! 자기 삶을 성실하게 수행하면 이름은 나중에 저절로 알려지는 법이다. 『장미의 이름』 류의 중세 수도원을 배경으로 삼은 소설에 꼭 나오는 등장인물이나 상황 가운데 하나는 장서관의 필사에 관한 수사나 관련 업무이다. 꼭 남겨야 할 텍스트나 소장해야 할 텍스트를 선별하여서 정성껏 손질한 양피지에 꼼꼼하고 정확하게 글자를 써넣고 도안을 그리고 장정과 제본을 하는 일에 관한 묘사를 읽으면 정말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하는 기독교 찬송가의 노래에 전혀 손색이 없는 숭고하고 거룩한 감동을 느낀다. 권세를 부리고 재물을 탐하고 육신의 향락을 추구하는 은폐된 교회의 타락한 권력 다툼에서 벗어나 묵묵히 절대자를 향해 헌신한 수많은 필사 수사의 공으로 우리는 고전 희랍과 라틴어 텍스트를 이어받아 읽을 수 있고 연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수많은 수사의 이름은 거의 잊혔지만 그들의 손때와 땀방울은 여전히 양피지 위에 영광의 훈장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

37) 『史記』「伯夷列傳」. 君子疾沒世而名不稱焉. 賈子曰. 貪夫徇財. 烈士徇名. 夸者死權. 衆庶馮生. 同明相照. 同類相求. 雲從龍. 風從虎. 聖人作而萬物覩. 伯夷叔齊雖賢. 得夫子而名益彰. 顏淵雖篤學. 附驥尾而行益顯. 巖穴之士. 趣舍有時. 若此類名堙滅而不稱. 悲夫! 閭巷之人. 欲砥行立名者. 非附靑雲之士. 惡能施於後世哉!

## 〈참고문헌〉

『周易』  
『禮記』  
『論語』  
『孟子』  
『史記』  
『老子』  
『莊子』  
『荀子』  
『燃藜室記述』  
『성경전서』

장영진, 『漢字字源辭典』, 심산, 2018.

김태완, 『주자평전』, 역사비평, 2015.

김태완, 『나의 외국어 학습기』, 메멘토, 2019.

다니엘 에버렛/윤영삼, 『잠들면 안 돼, 거기 뱀이 있어』, 꾸리에, 2013.

모텐 H. 크리스티안센, 닉 체터/이혜경, 『진화하는 언어』, 웨일북, 2023.

朴惠淑 編譯, 『司馬遷의 歷史認識』, 한길사, 1988.

안삼환, 『한국 교양인을 위한 새 독일문학사』, 세창출판사, 2018.

안재원, 『원천으로 가는 길 서양 고전 문헌학 입문』, 논형, 2019

최민숙 · 이온화 · 김연수 · 이경희, 『독일문학사』, 지식올만드는지식, 2023.

Apologies for Hemes God of the Messengers:  
A Brief History of My Translations

Kim, Tae-wan \*

When a person is born, he becomes a member of the language world. Various fields of study, such as philosophy, evolutionary biology, and cognitive science, have been researching all kinds of things about language, such as the origin of language, the nature of language, and the innateness of human language ability (the so-called language instinct), but debate continues. Leaving aside the study of the nature of language as a matter of linguistics, in reality, all human beings are born and live as members of the established language world. No matter what language was the original language, since we were born and live in a world where language already works, objects with known names accept the relationship between names and referents to communicate with the language, and when we encounter new objects, we say what. By naming, the thing comes into existence in our consciousness.

Languages vary from country to country and region to region. So, from a very long ancient society, there was a need to communicate with other languages. The role of this communication is called translation (interpretation). In principle, translation should deliver the original text with 100% accuracy, but since everyone has their own pre-understanding, distortions inevitably occur during the transmission process. Interpretation intervenes between accurate delivery and arbitrary distortion. And when one culture meets another culture, mutual understanding is enhanced through the

---

\* Special Researcher, Institute of Honam Studie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E-mail: youngok0215@hanmail.net

process of translation, and through this, both cultures develop.

Ancient East Asian societies accepted Buddhism through translation and in modern times accepted Christianity. Likewise, East-West trade was carried out in the West, and Eastern ideas such as Buddhism, Confucianism, and Taoism were spread. Translation plays as important a role as creation in the development of a culture. However, there was a tendency in our modern society to belittle translation. This is because there was a culture that accepted translation as a part of developing research capabilities and aspects stemming from the long-held conventional stereotype that translation was regarded as a role similar to that of interpreting, and that interpretation was the responsibility of a Chinese interpreter. A translation cannot exist without the original. Translation starts with the existence of the original. Translation presupposes the existence of the original work, but once translated, it forms another culture in the transplanted place and furthermore becomes its own text.

### **Key Words**

The world of language, Names and references, Language communication, Translation, Pre-understanding, Interpretation, Translator

논문접수일: 2023. 5. 15, 심사완료일: 2023. 6. 7, 게재확정일: 2023. 6. 30.
--